

현대미술 거장들의 향연

October 9, 2017 | 손영옥 선임기자

현대미술 거장들의 향연

마이클 크래이그-마틴, 폴 매카시, 엘 아나추이, 줄리안 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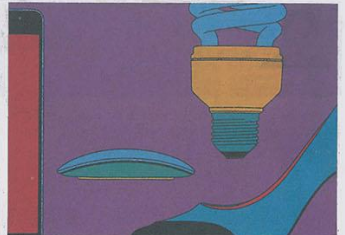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뿐만 아니라 두근거리는 현대미술 거장들의 개인전이 경쟁하듯 열리고 있다. 전시 장소가 서울 종로구 삼정동 일대에 집중돼 한꺼번에 관람하기에 편리하다. 줄리안 오피 개인전만 경기도 수원시에 마련됐는데, 80점에 달하는 대규모 유행이라 따로 찾아갈 만하다. 마침 1990년대 세계미술계에 부상했던 영국 'YBA(Young British Artists)'의 산실인 골드스미스 대학의



엘 아나추이, '리허설' (2015)



바라캣 서울 제공, 폴 매카시, '화이트 스노우 헤드'



국제갤러리 제공 마이클 크래이그-마틴, '커틀러리얼스' (2017) | 갤러리현대 제공

바라캣 서울, 가나 작가 엘 아나추이 전
버려진 병뚜껑으로 된 태피스트리
현대사회 소비·낭비의 문제 고발

국제갤러리, 미국 작가 폴 매카시 전
자본주의 폭력성 고발하는 작가
이번엔 동화 같은 소재 들고 나와

갤러리현대, 영국 작가 크래이그-마틴 전
아이폰·노트북 등 일상의 물건들
캔버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낮설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줄리안 오피 전
크래이그-마틴 제작-팝아트 작가
도시인 걷는 옆모습 그린 작품 인기

수(크래이그-마틴)와 제작(오피)가 나란히 전시를 가져 못 갔다.

가나 설치미술 작가 엘 아나추이 개인전(바라캣 서울 11월 26일까지)

바라캣 서울은 세계적인 컬러리스트인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파예즈 바라캣이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에 낸 지점이다. 이번엔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가나 출신 아나추이(73) 전시를 열어 전기를 발휘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은빛 금빛이 깔린 태피스트리(무늬를 넣어 짠 벽걸이용 직물)가 커튼처럼 걸려 있다. 버려진 병뚜껑을 엮어 짠 것임을 알고 놀라게 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소비와 낭비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고발한다. 또한 반감제적인 무역협정에 따라 토착 경제를 파탄시킨 역사를 가진 서구 슬병의 뚜껑으로 직조한 '금속 태피스트리'는 식민의 상처와 제국

주의 수탈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조각의 개념을 확장시킨 이런 작품세계로 그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미국 현대미술 작가 폴 매카시 개인전(국제갤러리 10월 29일까지)

폴 매카시(72)는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유쾌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고발하는 문체적 작가이다. 2012년 국내 첫 개인전에 이어 두 번째.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섹스하는 돼지, 피범벅이 된 산타클로스 등 얼기적 오브제를 선보여 충격에 빠졌던 그가 이번에는 백설공주와 난쟁이 등 동화 같은 소재를 들고 나왔다.

가장 매혹적인 것은 바닥에 놓여진 굵은 머리 백설공주의 두상. 거대하긴 하지만 비누조각처럼 부드러운 살구색과 흰색 실리핀 조각의 목에 철침이 박혀 있어 섬뜩하다. '코어(core)'로 불리는 이것은 실리핀 조각을 하기 전에 주조과정에 사용되는 뼈대다. 옆에는 그 뼈대의 또 다른 코어로 보이는 조각이 날브러져 있다. 완성된 작품보다 코어에서 더 진정한 내면을 발견했다는 작가. 그리하여 그 뼈대 이전의 또 다른 뼈대를 상상해 계속 코어를 만든다.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코어 조각이 계속 생성될수록 구체적인 형상이 제거되며 추상의 형태를 갖는다.

코어의 반복 생산은 자본주의 문화의 참변인 윌트 디즈니의 마케인 전략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스핀 오프'(파생 작품)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해 했다.

영국 개념미술 작가 마이클 크래이그-마틴 개인전(갤러리현대 11월 5일까지)

아이폰 노트북 마우스 전구... 일상의 물건들이 캔버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낮설다. 굵은 윤곽선으로 단순화시킨 이것은 개인국의 것처럼 엄청나게 큰데다 부분을 팔로즈입했기 때문이다. 색상 또한 의외로 밝았다. 우리가 언제 분홍색 전구, 빨강 파랑의 맥주 캔을 본 적이 있었건



줄리안 오피 '비 오는 날 서울 상용을 걷는 사람들' (2014). 작가는 "서울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은 거의 90%가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크래이그-마틴(76)은 "예술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것이다. 예술은 어느 것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미 주위에 있다. 단일 작품 뿐 아니라 제단화나 병풍처럼 연속적인 작품도 내놨다. 작가는 런던 인근 골드스미스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며 1980년대 후반 데미안 허스트 같은 세계적 작가를 키워냈던 교육자이기도 하다. 갤러리현대에서는 5년 만의 개인전이다.

영국 팝아트 작가 줄리안 오피 개인전(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내년 1월 21일까지)

크래이그-마틴의 제작인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의 줄리안 오피(59)는 익명의 도시인이 바빠 걷는 옆모습을 만화처럼 굵은 선으로 표현한 영상 혹은 회화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누리는 작가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는데, 초기작부터 최근까지 망라하며 불량 면에서 압도적이다.

특유의 걷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 풍경 등으로 소재를 확장하고, 영상 벽화 태피스트리까지 장르도 폭넓다. 실제 머리를 스캔하고 3D기법을 프린트한 후 직전 재

색한 거대한 두상 '델핀.1', 도시 이미지의 기억을 담아낸 8m 높이의 대규모 설치 조각 등 평소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나와 반갑다. 한국인에게 서울 동자구 사당동 일대를 걷는 서울 사람들을 묘사한 작품이 가장 시선을 사로잡을 것 같다.

왜 걷는 사람이나는 질문에 작가는 "걷는 사람을 주로 보지 않느냐. 아주 흥미로운 소재다. 얼굴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얼굴을 몰라도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는 걷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